1. 출국 전 준비과정

비자발급	필요 서류	-		
		-		
	소요 시간	-		
	비용	-		
항공권	구입시기	*파견 3개월 전 (4월)*		
	구입처	*에미레이트항공 학생운임 사이트*		
	구입가격	*왕복 ₩1,094,600*		
	여정	가는편: 인천-두바이(약 4시간 경유)-프랑크푸르트 오는편: 헝가리-두바이(약 3시간 경유)-인천 *※ 경유했을 경우 경유지 포함하여 작성*		
출국	프로그램 시작일	2025.7.6	프로그램 학기종료일	**2025.7.25**
	출국일	2025.7.4	귀국일	**2025.8.11**
	보험시작일	2025.7.4	보험종료일	**2025.8.11**
보험	비용	**₩24,840**		
	형태	☑ 국내 가입 ☐ 국외 가입(파견대학 보험) ☐ 국내 + 국외가입		
출국 및 도착	이동 수단	☑ 공항 철도 ☐ 버스 ☐ 지하철 ☑ 현지 픽업 ☐ 기타 ( )		
	비용	프랑크푸르트 공항역 -> 오스나브뤼크 중앙역 ICE ₩57,727		
	시간	*약 3시간 40분*		
픽업서비스	☑ 있음 ☐ 없음			

2. 현지 수학 내용

수업	이수 과목 (전체)	과목명	수업 진행 방식
		- German Language and Culture A1.2	*강의식,* *프로젝트 2개(글쓰기,역할극영상)*
	추천 수업	과목명	사유
		- German Language and Culture A1.2	독일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이어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친해지며 독일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수업 외 학교 생활	기타 프로그램	Bremen Day Trip, Scavenger Hunt, Excursion to the Northern Sea 등	
	추천 활동	*Bremen Day Trip을 추천드립니다. 근교에 있는 도시인 Bremen의 역사적, 문화적 사실들을 알 수 있는 City Tour가 약 2시간 가량 진행되었고, 그 후에는 자유롭게 도시를 돌아다니며 탐방할 수 있었습니다.*	

3. 현지 생활 내용

현지생활	수업 환경	*수업은 강의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A1.2수준은 두 개의 반으로 나뉘어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선생님께서 독일어 초보자의 시각으로 정말 쉬운 수준으로 가르쳐주셨습니다. 8시 30분 또는 9시에 수업이*

		시작하며, 중간에 30분 쉬는시간이 주어져 12시에 마칩니다. 이 시간을 이용해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물을 마시거나, Mensa에서 간단히 먹을 빵이나 음료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은 수업을 들으셨다면 어렵지 않게 출제됩니다.
	생활 환경	*더울 줄 알았으나 매우 추웠습니다. 한국의 가을~초겨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패딩 입고 다니는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따뜻한 외투들도 몇벌 챙겨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부피가 신경쓰이신다면 학교 근처에 H&M, 자라, Newyorker 등 옷가게가 많으니 사셔도 됩니다! 외식 물가가 매우 비싼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인당 2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학교 근처 마트인 EDEKA에서 장을 봐 홈스테이에서 간단히 요리를 해먹은 적이 많습니다. Asia마트도 있으니 한국 라면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4. 귀국 준비 및 과정

귀국 전 준비	비용	-
	기타	*e-sim 삭제*
귀국	여정	헝가리 부다페스트 공항 – 두바이 경유 - 인천

5. 자기 평가 및 건의사항

파견 전후 변화	**학습 측면**	※ 독일어 회화 실력 향상 – B1.1까지 배운 상태에서 수업을 들었으나,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실생활에서 쓰이는 독일어는 교재로만은 배울 수 없기에 그 점이 매우 이점입니다.
	비학습 측면	※ 자신감 형성 – 독일어 말하기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3주가량 생활하면서 장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실생활에서의 독일어 말하기를 자주 하다보니 얻은 변화입니다.
건의사항	-	

6. 기타

학교에서 준 Deutschland Ticket으로 RE,RB,모든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스나브뤼크 내에서 이동하실 때 구글 지도보다 vos 앱을 이용하시면 더 정확합니다. 저는 홈스테이가 외곽 지역이어서 도보로 2시간 가량 걸렸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버스를 타고 다녀야 했는데, vos앱은 막차 시간과 집 도착시간을 오류없이 정확하게 알려주어 어두워지기 전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외곽은 가로등이 몇 개 없고 사람도 별로 안 지나다녀 해가 지면 좀 무서웠습니다.)

독일은 연착이 일상입니다. 항상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역에 도착하시고, 뒤의 일정을 잡으실 때도 여유를 두고 잡으시길 바랍니다.

Mensa는 학생 게스트 카드를 받아 그 안에 돈을 충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와 현금 두 방식으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탄산수가 많으니 잘 보고 구매하셔야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는 대중화되어 있지 않기에 무의식적으로 자전거 도로에서 걸어다니면 심하게는 매우 화를 내며 지나가실 때도 있습니다. 항상 인도로만! 다니시길 바랍니다.

7. 현지 사진 6장



오스나브뤼크대학교 Schlossgarten





Asia Bangkok 마트



Mensa (학교식당)





Excursion to Nordsee - 북해와 물개

	
Bremen Day Trip – Die Bremer Stadtmusikanten 당나귀의 두 앞다리를 잡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다.	*Berlin Dom 앞에서*